

아름다운 새 출발

코디네이터 송미진



조혈모세포, 흔히 골수라고들 많이 알고 있다. 우리 정상인들의 몸에 존재하는 혈액들 중 약 1% 정도에 해당하는데, 쉽게 말하자면 백혈구·적혈구·혈소판을 만들어내는 어머니 세포를 말하며 같은 조혈모세포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아직 백혈병의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이 어머니세포가 부족하거나 병들거나 해서 생기며 이런 백혈병을 앓는 이들이 많이 있다. 유전자가 일컫는 타인의 조혈모세포를 이식받아 완치하는 것만이 백혈병환자와 그 가족들의 유일한 희망이다. 이 병으로 고통 받는 이들과 이들의 가족들은 하루하루를 백사장에서 모래알 찾듯이 기증자들을 찾아 헤매고 있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환자들이 모래알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소중한 모래알의 일부가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곳이다. 나는 그 전달자들 중 한명이다. 때로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 때로는 아주 먼 지방까지 가서야 그 소중한 모래알들을 만나기도 한다.

백사장에 수많은 모래알들이 있지만 백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확인해 볼 수 있는 모래알은 한줌도 못되는 양이다. 우리나라는 인구 4천 8백만 명 중에서 현재까지 약 9만 명 정도의 기증자들이 등록 되어 있다. 4천만 개의 모래알 중 9만개, 한 줌 정도나 될까? 그 한줌도 못되는 모래알에서 같은 모양의 모래알을 찾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지 않은 한줌의 모래알에서도 모두 환자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국 곳곳 시골 구석구석까지 다니면서 가장 안타깝게 느낀 것이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사람들의 아주 잘못된 편견이었다. 대부분의 기증희망자들을 포함한 일반인들은 조혈모세포채취 과정을 오해하고 있었다. 백혈병 환자들은 혈액상태를

정밀하게 검사하기 위해 척추에서 척수를 뽑는 과정이 있는데, TV의 드라마나 다큐멘터리 등에서 흔히 한번쯤은 보아서 알고 있을 것이다. 아직 등록을 망설이는 분들은 이 과정을 기증하는 과정 중 하나로 오인하여 조혈모세포기증이 몹시 힘들고 아프고, 후유증이 남을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하지만 이런 오해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내 것을 나누어주겠노라고 흔쾌히 허락하는 훌륭한 분들 또한 많이 만날 수 있다. 기증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면, 알고 있던 방법과는 많이 다르다며 오히려 더 안심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이 분들 때문에 먼 거리도 가벼운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다.

기증자 한분 한분이 너무나도 소중한지만, 그분들 중에 한분인 최종훈님. 힘들고 두렵지 않게, 소중한 나눔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안내자의 역할을 맡게 된 지난 8월, 나는 최종훈님을 통해 깊은 감명을 받을 수 있었다.

기증희망등록자 중 유전자형이 일치하여 환자에게 기증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기증희망자뿐 아니라 그분들의 가족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모두가 기꺼이 동의해줘 순조롭게 기증을 하는 분들,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족들의 반대로 기증에 동참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간혹,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에 기증을 포기하는 분들도 있다. 그분은 이르자면 마지막 경우에 속하는 기증희망자였다. 회사에 입사한지 얼마 안되어서 회사일로 인해 바쁘기도 하지만, 올해 10월에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이기도 한 최종훈님은 얼마 남지 않은 결혼준비로 눈코 뜰 새도 없이 바쁜 상황이었다.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혈모세포기증을 할 묘안을 내셨다.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새 출발과 함께 조혈모세포기증을 같이 하기로 한 것이다. 웨딩촬영과 웨딩준비 할 때 건강검진, 자가 채혈을 하고 입원에서 퇴원까지는 결혼휴가를 쪼개어 시간을 아주 알뜰하게 할애하였다. 또한 예비신부님은 지방에서 멀리까지 올라와 예비신랑 옆에서 기증을 잘할 수 있게 힘을 북돋아 주었다.

퇴원 후에도 환자분께 사랑의 편지와, 기증을 할 수 있게 용기를 준책을 보내주어 환자분께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다. 예비부부의 희망찬 새 출발과 조혈모세포를 이식받은 환자분의 힘찬 출발이 어찌 보면 많이 닮아있었다. 예비부부의 예쁜 사랑의 조혈모세포기증은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평생 잊지 못할 결혼 선물일 것이다.

오늘도 전쟁과 같은 하루가 지나갔다. 전국 곳곳으로 기꺼이 기증에 동참하겠다는 소중한 분들을 만나러 가는 일이 육체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 돌아오는 길은 항상 마음이 따뜻해진다. 그 분들을 생각하며 힘차게 하루하루를 시작한다.